

01 교회소식

만민을 만난 뒤 변화된 삶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 말씀을 통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치유 역사까지 체험한 해외 목회자와 성도의 감사서신.

02 생명의 말씀

화평으로 맺는 의의 열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며 축복의 길로 인도한다.

03 기획특집

응답의 비결은 바로 믿음!

태국 방콕의 아신톤, 키티딕 농아 형제가 이재록 목사의 기도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통해 귀가 열리고 잘 듣게 되었다.

04 간증

“하나님 믿기를 백번 잘했네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걷게 된 김옥자 성도와 화재와 태풍 속력으로부터 보호받은 김민수 성도 간증.

만민뉴스

제857호 2018년 9월 2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해외에서 온 편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회자로서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2004년 12월, 26일간의 금식기도 중 2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마음이 더욱 간절해져 “주님!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주옵소서!” 하며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7시경이 되어 집회 설교를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아주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TV를 켜서 보라!’

그 당시 저는 금식 중이었고, 설교 준비 등을 하느라 TV를 전혀 보지 않고 있었지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TV를 켜더니 목회자 한 분이 성회를 인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2004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

합대회’였지요. 잠시 보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에 놀라워하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다시 제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 왔습니다. ‘TV에 나온 그 사람이 너에게 나에게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네가 나를 더 알고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것이라’

저는 만민중앙교회 홈페이지(www.manmin.org)에 들어가 스페인어로 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읽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26일 금식하며 기도했던 소원이 이재록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응답된 것을 깨우치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목사님의 영적인 말씀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감동적이고 은혜롭습니다. 진실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경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 어떠한 헌신을 드려야 하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더욱 헌신

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요.

저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장내 감염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병원 신세도 자주 졌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치료 역사나 기적에 대해 전하지만, 막상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결단하였지요. 더는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약도 끊은 결과, 장내 감염을 치료받아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한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가르쳐 주신 이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민의 모든 성도님뿐 아니라 초교파적인 사역을 통해 전 세계 영혼들을 성결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진실한 주님의 종인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2018. 8. 10. (금)
홀리오 알프레도 목사 (에콰도르 콰야킬 방주교회)



홀리오 알프레도 목사 부부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일곱 살 때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사진 맨 오른쪽), ‘이스라엘의 살아 계신 하나님 교회’에 엄마(로사 바오스)와 여동생(까를라 고메즈)과 함께 출석한 지는 7년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 교회가 만민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더욱 행복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참된 진리를 알려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저희에게 큰 영광이자 축복이었지요. 한번은 꿈속에서 저와 교회 식구들이 한국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회장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 당시 완벽하게 스페인어를 구사하고 계셔서 함께 대화를 나누었고, 저희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은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며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죄와 실수, 불순종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저희의 삶을 소망

으로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저희는 더 나은 부모와 형제, 자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할 수 있었지요.

앞으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늘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더욱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영적인 양식을 먹여 주신 당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새 생명을 주었고, 권능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당회장님께서 저희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주님께서 치료의 역사들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엄마는 극심한 복통과 두통에 시달렸으나 지난 5월 20일, 콜롬비아만민교회 장정연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여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해주셨을 때 온전히 치료받으셨지요. 이 일을 계기로 저

는 당회장님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긍휼과 진리, 권능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전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많은 영혼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심을 알려 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8. 8. 20. (월)
루세로 고메즈 자매 (칠레 로스안헬레스)



화평으로 맺는 의의 열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3:17~18)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Senior Pastor Dr. Jaerock Lee

- 예수교연합성결회 총회장
- (사) 기독교 세계부흥선교협의회 상임총재
- (사) 국회사랑 구국기도 총연합회 공동총재
- 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GCN) 이사장
- 세계기독교사네트워크(WCDN) 이사장
- 만민국제신학교(MIS) 이사장
- 연합성결신학교 이사장
- 목회학 박사, 명예신학 박사
- 만민중앙성결교회 당회장
-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등에 방송 설교
- 미국 뉴욕, 워싱턴, 볼티모어, 메릴랜드, L.A., 하와이, 일본,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페루, 러시아, 독일,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스토니아 등에서 연합대성회 인도

만일 상대가 몹시 화났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더는 상대의 화를 돋우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이내 감정이 생겨 “헤어지자”는 말을 서슴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며 선한 말로써 모두와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화평케 하는 자'란 하나님께 화평을 심는 자

야고보서 3장 17절에 나오는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지혜의 항목들을 다 이루었을 때 18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화평'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화평으로 심는 사람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진리를 어기고 불의와 타협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혹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도 있지요. 흔한 예가 보증을 서는 일이나 돈 거래입니다.

성경은 “남의 빛에 보증이 되지 말라”(잠 22:26),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롬 13:8) 말합니다. 그런데도 막상 가까운 사람이 “보증을 서 달라” 하거나 “사업 자금을 빌려 달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불순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가 도와 달라 하면 차마 뿌리치지 못하지요.

이는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되돌려 받지 않을 마음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다가 서로 원수 맺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화평을 하나님과의 화평보다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구해 타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평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소년 시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총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섬기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왕과 화평을 깨뜨리지 않으려면, 우상 앞에 한 번만 절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이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기엔 그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왕이 아닌 하나님과의 화평을 택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로운 행동을 크게 드러내셨지요. 화가 난 왕이 그들을 평소보다 칠 배나 더 뜨겁게 한 풀

무 불에 던져 넣었지만, 전혀 해를 입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적을 본 바벨론 왕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을 뿐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여 주었습니다(단 3장).

이처럼 하나님과의 화평을 지킴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도 감당한 것입니다.

2.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화평케 하는 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와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말씀한 대로 사람 보기에 의와 하나님 보시기에 의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원수를 갚는 것이 의롭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의롭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따라 화평을 깨는 사람을 의롭다 하지 않으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미움, 혐기, 시기, 다툼, 간음, 욕심 등 마음에 많은 악이 있어도 행위로 범죄하기 전에는 불의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범죄하지 않아도 마음에 악이 있다면 불의하다 하시지요.

이처럼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다릅니다.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흠 없게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전 12:13).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자기 보기에 의로운 쪽을 택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이룰 때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리고 사람과 화평을 이룬다면 그 화평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가정에서 제사상에 절하지 않는다 해도, 그 방법에 있어서 얼마나 지혜롭게 행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믿지 않는 가족을 설득할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차라리 잠잠한 것이 낫습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 나갈 때, 합당한 때가 되면 가족복음화의 기회도 오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급해 자신이 앞서서 행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한 말로 자기 의견을 주장하거나, 감정 섞인 말로 다투는 등 가족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요. 자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오시는 길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아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신이 옳다 해도 자기 의로움 속에 불필요한 일을 행하여 더 큰 연단을 불러온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3.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는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만큼 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한 것은 사람들의 악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의로운 마음으로 분명한 사실을 전하고 진리로 말했지만, 악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찌르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이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피할 길을 찾아 행했다면 생명을 잃지 않고 더 많은 사역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언행이 온전하여 누구에게도 흠 잡힐 말씀은 하지 않으셨고, 아무에게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셨지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주위의 모든 환경을 고요하게 평정해 가셨지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를 이루어 간다 해도 말이나 행동이 온전치 못한 만큼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행하셨는지 묵상함으로 지혜로운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을 택할 뿐 아니라, 방법론에 있어서도 선한 지혜를 받아야 속히 응답받고 모든 사람과도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고 화평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행함이 있는 참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속히 모든 죄악을 벗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이뤄나가야 하지요. 만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여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더는 화평을 깨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항상 하나님과 화평할 뿐 아니라 점점 깊은 신뢰관계를 만들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4. 화평케 하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사실에 대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가 몰랐던 일이라 하자 아브라함은 더는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면박을 주려 하거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다만 일을 짚고 넘어감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아브라함은 우물로 인해 다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줌으로써 둘 사이에 언약을 세웁니다. 책망을 하면서도 화평을 좇고, 화평을 좇으면서도 서로 간에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이지요. 종들의 잘못에 책임을 지고 피해 보상해야 할 아비멜렉에게 도리어 아브라함이 우물 값을 치르자, 그는 중심에서 아브라함 앞에 굴복합니다. 이후로는 종들을 단속하여 우물을 넘보지 못하게 했지요(창 21장).

아브라함은 선의 지혜로써 모든 일을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며, 나아가 어떤 문제의 소지도 없도록 했지요. 이렇게 화평을 이루는 선의 지혜를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에도 더 신속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혹 자신을 반대하는 상대방도 선의 지혜로써 마음을 얻는다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요. 이러한 선의 지혜는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사심 없이 정직하게 행할 때에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거짓이 없고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중심이었기에 하나님과도 화평했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주저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창 12장). 이러한 마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독자 이삭을 통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독자를 짐승처럼 번제로 드리라 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망설임 없이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순종할 중심임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릴 숫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지요(창 22장).

아브라함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행통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화

평하므로 그와 함께한 듯도 축복받았습니다.

또 출애굽 지도자 모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입었습니다. 광야에서 백성이 불평 불만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등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지옥에 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출 32:31~32).

이처럼 다른 영혼들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화평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참 자녀라 할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 5:9) 말씀한 대로입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히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애굽 왕이 꾸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장차 애굽에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이어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애굽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7년간 계속된 흉년 중에 애굽을 구하고, 섬기는 왕을 부요하게 만들지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형제들도 기근에서 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길도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평안케 하며,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악을 버리며 성결을 이룬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성결과 화평, 관용과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것, 이러한 항목들을 마음 깊이 새겨 사람들과의 화평은 물론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일 뿐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분야에 넘치게 충성하는 ‘온 집에 충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섬김과 희생, 사랑과 덕으로써 온 집에 충성하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영적 담대함을 얻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 중에 거하며, 풍성한 의의 열매를 거뒀던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동생이 귀가 열리고 잘 듣게 되었습니다!”

야신톤 강 카왕 형제 (21세, 태국 방콕만민농아교회)

저는 선천성 농아로 너무나 불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른쪽 귀는 전혀 안 들렸고, 왼쪽 귀는 미세하게나마 조금 들렸지요. 그러던 중 전도되어 2017년 5월부터 태국 방콕만민농아교회에 다니면서 그해 8월에 처음으로 만민하게수련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가도를 받고는 왼쪽 귀가 잘 들리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어 올해 수련회 때에도 치료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생(오른쪽)과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 참석했습니다.

8월 6일 수련회 첫날,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



수건으로(행 19:11~12) 이수진 목사님이 단에서 전체 기도를 해 주실 때, 저는 단 아래에서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손수건 기도를 직접 받았는데 왼쪽 귀에서 무언가 소리가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뒤 전보다 소리를 잘 구분할 수 있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더욱 감사한 것은 동생(키티타 캉 카왕, 16세)도 오른쪽 귀가 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왼쪽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상대방 말의 문장 전체를 못 듣고 일부만 들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기도받을 때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오른쪽 귀가 열려 문장 전체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걷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김옥자 성도 (77세, 강릉만민교회)



2018년 2월, 된장을 담그다가 발을 헛디뎠던 1m 높이의 장독대에서 낙상하였습니다. 4주간 병원에서 누워 지내다가 퇴원한 뒤 보행보조기를 의지하여 조금씩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양발에 마비 증세가 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12번 흉추가 골절되어 척수신경을 눌러 발에 마비 증세가 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5월 31일, 강릉 아산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더는 나빠지지 않게 수술은 했는데 이미 마비가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못 걸으실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못 걷는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6월 15일, 퇴원은 했지만 척추 보호대와 발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생활해야 했습니다. 보행보조기를 붙들거나 주변 사람이 부축해 주어야 겨우 일어설 수 있었고, 발은 땅에 질질 끌렸지요. 척수신경이 눌러 발에서 열이 났고 발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6월 21일, 경기도 이천 아들네 집에 가서 인근 노인전문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하루 세 차례 받게 해주었습니다. ‘십자가의 도’ 설교도 꾸준히 듣다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지요. 주의 종과 일꾼들도 심방 올 때마다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며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주일에는 아들 내외의 부축을 받아 교회에 가서 대예배에 참석했는데, 신기하게도 한 주 한 주 호전되는 것을 느꼈고 다리에도 힘이 주어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며느리가 “수련회에 참석하시면 하나님께서 잘 걷게 해 주실 거예요” 하며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MRI 촬영



▲ 기도받기 전, 흉추 12번이 압박골절되어 척수신경을 누르고 척추후만을 이루고 있었으나 지난 8월 만민하게수련회 시 기도받은 후,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고 있는 김옥자 성도.

“위험천만한 화재와 태풍 솔릭으로부터 지킴받았습니다!”

김민수 성도 (42세, 동광주만민교회)



저는 2017년 10월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초신자임에도 여러 모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아주 귀한 무화과 품종을 어렵사리 얻어 전남 해남에서 1,200평 대지의 비닐하우스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3일 오후 3시경,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였는데 불길의 저희 비닐하우스 쪽으로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따뜻한 봄날에 바람까지 많이 불었기에 제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비닐하우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제발, 제발 조금만 타라. 조금만 타라’, 그리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목자의 하나님! 꼭 지켜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며 속력을 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살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람을 타고 온 불길이 비닐하우스 바로 앞 약 한 뼘 정도의 간격을 두고 멈춘 것입니다(사진). 불씨가 날려 비닐하우스에 구멍이라도 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온전히 지킴받았지요. 할렐루야!

만일 비닐하우스가 화재로 타버렸다면 1억 원의 시설비에 어렵게 얻은 무화과 품종까지 잃는 허망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시는 사실에 감사가 절로 나왔지요.

최근에는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온다는 뉴스를 듣고 6년 전, 태풍 ‘볼라벤’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희 비닐

하우스 전체가 폭삭 주저앉아 큰 피해를 입었지요. 그런데 솔릭이 볼라벤과 유사한 경로와 세력으로 북상 중이었습니다. 이대로 올 경우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지요.

이에 아침마다 일어나 지킴 받도록 기도하며, 각각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ARS(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세 번씩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태풍 솔릭은 잠시 멈칫하더니 해남 쪽으로 올 때는 풍속이 갑자기 크게 줄어 저희는 결국 피해를 전혀 받지 않고 지킴 받게 되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된 축복 속에 늘 불꽃같은 눈동자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광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73-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충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리로 167-82 ☎051)805-3998, 010-9140-4194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998, 010-9140-4194
- 서남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8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광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강원도 연천군 백학면 백영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길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7-001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휴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자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자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자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자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2208-5719
- 북부자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자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자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60번길 26, 2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자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역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자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자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시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자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99, 010-8927-2073
- 일산자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딩 ☎031)905-2419, 010-2352-8336